

# 여수 '엽기적 죽음의 게임' 설계자 있었다

### 법률지식 이용 가짜 빚 만들어 폭행...수년간 심리·육체적 지배 돈 뜯어 사상자 2명 생명 위독 속 화상전화로 감시하며 한달간 서로 때리게 해 쌍방폭행 허위진술 사주도...여수경찰 보강수사로 배후 밝혀 구속송치

졸음운전 쉼터에서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서로 폭행한 일명 '죽음의 게임' (8월 2일자 광주일보 6면)의 배후가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들은 채권자를 자처한 30대에 수년간 심리·육체적으로 지배당하고 수 억 원을 뜯겼다. 한 달 여 차량에 감금된 채 서로 폭행해 결국 한 명이 숨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도 그의 지시에 따른 참극이었다.

여수경찰은 살인 및 중감금치상 혐의로 A(31)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29일 밤 11시 40분께 여수시 소라면 엑스포대로 졸음쉼터 SUV 차량에서 B(31)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 운전자인 C(30)씨에게 허벅지 패혈증 등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A씨의 폭행으로 사실상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이 사건과 관련해 C씨는 B씨와 게임머니를 두고 다투다 쌍방을 때리는 일명 '죽음의 게임'을 하다가 B씨가 숨졌다고 진술 했었다.

하지만 경찰은 B씨와 C씨의 상처에서 고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이 진술과 다르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보강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3일전 폭행했다고 진술했으나 고사는 최소 수개월 지난 것이었다.

경찰은 삭제된 차량 블랙박스과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수사 등을 통해 이들의 배후에 A씨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법률 관련 공부를 했던 A씨는 지난 2019년 당시 동업 문제로 고충을 겪던 C씨에게 접근했다. C씨를 잘 구슬리면 돈을 뜯어낼 수 있을 거라 판단했던 것이다.

A씨는 C씨에게 전화와 문자로 법률 관련 상담을 해준 뒤 변호사 선임 비용을 C씨에게 요구했다. 법정 소송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소송비용까지 요구했다.

A씨는 C씨를 채무자로 만든 뒤 돈을 요구하며 4년여간 협박과 폭행을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A씨에게 정신적·육체적인 지배상태가 됐다는 것이 경찰의 분석이다.

폭행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집중적으로 자행됐다. 장소는 C씨 선배 명의의 차량이었고 B씨와 C씨 집에서 이어졌다. 폭행도 구도 야구방망이, 철근 등으로 다양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간 관계는 B씨가 숨진 탓에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C씨와 유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B씨와 C씨는 서로 일면식이 없었지만, A씨의 명령에 한 달 여간 차량을 타며 이동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동할 때마다 휴대전화로 A씨에게 보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원거리에 있어 B씨와 C씨를 직접 폭행하지 못할 때에는 화상전화로 감시하면서 서로 때리도록 지시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A씨는 B씨와 C씨에 대한 지배관계를 더 확고히 했다는 것이다.

C씨는 졸음쉼터에서 B씨가 숨지자 119에 신고할 당시 의식이 흐려진 상황에서도 A씨가 미리 지시한 대로 쌍방 폭행으로 신고했다.

정신상담 전문가들은 B·C씨의 기이한 행동은 일명 '가스라이팅'이라고 봤다.

수년간 폭행이 진행되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정신·육체적으로 약해진 상태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용성 한마음신경정신과의원 원장은 "실제 돈을 빌리지도 않았는데 갚는다거나, 시키는 말에 순순히 따르게 되는 행동은 정신·육체적으로 약해진 상태에서 가능하다"면서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의심이라는 장벽을 넘어설 수 있고 당근과 채찍 전략 등을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른바 '세뇌'가 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세뇌 상태에 빠지면 일반인의 상식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사례는 전정을 수행하는 병사, 사이버 종교 등에 빠지는 경우가 같다"고 말했다.

/김단인 기자 kdi@kwangju.co.kr

## 9차례 음주운전의 말로 징역형 선고에 차량 몰수

9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차량을 몰수 당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 1단독(판사 박성남)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A씨의 차량을 몰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4시 20분께 장흥군 부산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운전면허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로 4k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한 혐의도 있다.

음주운전 전력이 8회에 달하는 A씨는 2020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됐지만 누범기간 중에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남지역에서 처음으로 A씨 차량을 압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피의자 호송 중 음독...6일만에 사망

### 전남경찰청, 호송 과정 감찰

경찰에 붙잡힌 40대 피의자가 호송 과정에서 음독해 6일만에 숨졌다.

28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경찰관 4명이 지난 21일 밤 9시께 경북 영주시 모처에서 호송하던 피의자 A씨가 음독을 했다.

A씨는 인근병원에 이송됐지만 6일만인 지난 27일 숨졌다.

경찰은 성범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1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구속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집에서 옷가지 등 짐을 챙길 수 있도록 했다.

집에 들른 A씨는 독극물이 담긴 생수병을 가방에 몰래 숨긴 뒤 전남경찰청 도착을 앞두고 마셨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A씨는 독극물이 든 생수병 사진을 주변과 공유하며 '언제든지 죽겠다'는 취지의 말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독극물을 챙긴 것을 파악하지 못해 A씨가 숨졌다는 점에서 피의자 관리 감독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포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의자에 대한 압수, 수색업무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돼 있다.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경찰은 위험 물품으로 라이터 등을 압수했지만 독극물은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휴대한 물병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제조제 성분이 검출됐다"면서 "호송 경찰관들을 상대로 수사와 호송과정 전반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석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점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광주 북구청 직원들이 28일 광주시 북구의 한 다중이용시설에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아내와 외도 의심...마을 주민 흥기로 찢러

### 보성경찰, 60대 남성 구속

경찰이 아내와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같은 마을에 살던 지인을 흥기로 찢른 6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보성경찰은 흥기로 지인을 찢른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밤 9시 40분께 보성군 보성읍

의 집 인근 거리에서 같은 마을 주민 60대 남성 B씨를 흥기로 찢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등에 8cm 깊이 자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A씨는 아내와 B씨가 외도하는 것 같다는 의심을 품다 이날 B씨와 딸다툼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체류기간 연장하려 허위 학위증 만든 외국인 2심도 징역형

한국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허위로 학위증을 만들어 제출한 외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평호)는 위계 공무집행 방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스리랑카 출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출입국사무소에 허위 학위

증을 제출해 체류 연장 허가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6년 입국해 15년간 국내 기업에 취업해 일을 한 A씨는 2019년 8월까지 체류기간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지난 2015년 1월 음주운전으로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때문에 비자 연장시 고려되는 경력점수가 깎이게 됐다.

고민 끝에 A씨는 스리랑카 교육기관에서 국가

지도자 학사과정을 수료했다는 학위증을 허위로 만들어 제출해 경력점수를 보충하기로 했다.

A씨는 2019년 7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측에 학위증을 제출해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리나라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지만 이 판결이 확정되면 체류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2015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체류자격을 상실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